어린이집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강승희 · 김창숙* · 황순영†
(부경대학교 · *밝은뜨락 어린이집 · † 부산대학교)

A study on Out Door Play of Day Care Centers in Jeju

Seung-Hee KANG · Chang-Suk KIM* · Soon-Young HW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밝은뜨락 어린이집 · †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16, 2008 / Accepted July 29, 200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environment and operation of outdoor play at day care centers in Jeju area and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outdoor play among teachers and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an outdoor play program for infant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teachers form about 100 day care centers in Jeju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tual environment of outdoor play mostly by the types of establishment and national, public, or corporate centers had better environment than private ones did. Second, the majority of day care centers in Jeju area were including and operating outdoor play in a daily schedule.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outdoor play among teachers.

Key words: outdoor play, day care center

Ⅰ. 서 론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발달해 나간다.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사물의 특성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며 친구들과 협동하며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또한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긴장과 피로를 해소시켜 주고 분노와 적개심을 발산시켜 영아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강문희, 2002). 즉, 영유아에게 놀이는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며 생활 그 자체이다. 영유아기에는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며 영유아기에 개발된 능력들은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보다 정교화 되므로 영유아기는 아동기의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유아의 놀이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구분될 수 있다. 실외놀이는 실내놀이와는 달리 영유아가 바깥의 신선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71, special-hsy@pusan.ac.kr

한 공기와 햇빛, 바람, 소리 그리고 동물, 식물, 여러 가지 촉감 등의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는 등 실내놀이 활동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영유아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실외놀이 활동은 영유아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데, 영유아들은 실내에서 보다 덜 구조적인 실외놀이 환경 속에서 많은 자유를 느끼면서 자신의 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놀이를 할수 있으며, 거칠고 모험적인 놀이에도 참여할 수 있다(Frost, 1992).

특히,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는 영아들의 놀이는 이후의 보다 정교한 놀이, 보다 복잡한 인지, 사회, 신체발달을 위한 토대가 된다. Wellhousen(2002)은 실내에서와 달리 실외공간에서 영아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으며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경험은 현재 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회성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외놀이에 대한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이 보고되고 있다(신동주, 2005; 이희경, 2006; Wellhousen, 2002).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실내놀이활동 및 실내놀이 환경에 대한 계획과 구성만큼 실외놀이활동 및 실외놀이환경의 계획과 조직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며, 협소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충분한 실외놀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신동주, 2005).

과거에는 실외놀이가 영유아기의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실외놀이 공간이 축소되어 과거처럼 자연 속을 다니며 벌레를 찾고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텔레비전, 컴퓨터, 오락 등의 실내활동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유괴 등의 영유아 안전문제로 더욱 더 실내에서 지내게 되는 실정이다. 또한 인지주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실외놀이의 기회를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외놀이의 많은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대부분의 하루일과 운영은 실내 환경에 기반한 실내 활동, 놀잇감을 매개로한 실내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적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실외놀이의 가치도 주로 신체 및 건강 영역에 편중되어 실외놀이를 신체와 건강놀이로 제한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성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었다(임재택 외, 2002).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국가수준에서부터 실외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지침서에 보육환경 영역과 보육과정 영역에서 실외놀이시설과 실외놀이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한 수준(3점)은 실외놀이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모래밭, 대근육 활동 시설 등 3종류 이상의 실외 놀이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영유아의 실외활동을 촉진하는 경우이다. 놀이시설의 예로는 기어오르기, 미끄럼틀, 그네, 탈 것, 시이소, 모래밭 등이 있어야 우수한 수준(3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외활동 시간은 매일 1시간 이상이고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보육과정에서 실내 활동과 실외활동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식도 높아져 가고 있으며 실외놀이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실시된 실외놀이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실외놀이터의 놀이 시설 및 설비 조사(구자옥, 1992 ; 김동숙, 1998 ; 박수경, 1996 ; 신동주, 1996 ; 이경혜, 1994), 실외놀이터 연구(신동주·김명순, 1999), 놀이 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 형태에 대한 연구(노현주, 1994 ; 류진순, 2003 ; 조경희 · 신동주, 1999 ; Shin, 199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실외놀이터의 놀이시설이나 설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에 치중

하여 그 운영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실외놀이가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이현경(2003), 신동주(2004), 유정선(2004), 황양선(2003) 등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들 연구도 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실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제주지역의 실외놀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Bergen(1987)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특성은 유아들의 놀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실외놀이 시설과 설비 구성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에서의 실외놀이에 관한 연구는 시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제주지역은 일찍부터 산업화와 관광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상당이 높은 지역으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5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제주도청, 2006).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많아지고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주지역의 보육시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실외 놀이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할 경우, 실외놀이시간에 영유아들의 놀이를 촉진하기 위해 영유아들의 놀이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영유아들과 활발히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영유아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실외놀이 활동지도 및 실외놀이 안전과 관련된 훈련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신동주· 양연임, 2003 ; Frost, 1992)들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운영 실태와 영유아 교사의 인식을 조사·분석해 보는 일은 앞으로 제주지역 영유아 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동을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영유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지역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만2세 미만 영아반 보육교사 147명과 만3세 이상의 유아를 보육하는 유아반 교사 60명으로 총 207명이었다. 본 연구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시에 위치한 국·공립, 법인, 민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립유형과 학급 규모에 관계없이 150개소의 어린이집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27개(75.6%)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답이 불분명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에 많은 질문지 20개는 무효설문지로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인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소재지 및 설립유형 N=207(%)

소재지		설립유형	
제주시	164(79.2)	국공립	30(14.5)
서귀포시	43(20.8)	법인시설	109(52.7)
		민간시설	68(32.9)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실외놀이에 관한 선행연구 중 황양선(2003), 유정선(2004), 신동주(2004), 김인숙(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은 실외놀이 운영실태에 관한 부분과 교사의 인식부분으로 구분된다. 실외놀이 운영실태에 관한 부분에는 실외놀이 환경 실태, 실외놀이 계획과 실시여부, 실외놀이 횟수와 실시시간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사의 인식 부분에는 실외놀이 실시 계획과 시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실외놀이 횟수와 시간, 실외놀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 영유아 교사의 실외놀이 시 역할에 대한 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실외놀이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 두 문항을 개방형 질문으로 하여 교사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처리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실외놀이 환경 실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제주지역 어린이집 실외놀이 환경실태에서 87.4%의 기관이 단독으로 실외놀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실외놀이 공간 유무

구분	실외놀이공간유무		전체	x^2
	예	아니오		
국공립	30(100.0)	0(0.00)	30(100.0)	36.41***
법인시설	105(96.3)	4(3.7)	109(100.0)	
민간시설	46(67.6)	22(32.4)	68(100.0)	
전체	181(87.4)	26(12.6)	207(100.0)	

***p<.001

<표 2>의 결과에 의하면 국공립 시설은 100%가 실외놀이 공간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67.6%만이 단독 실외놀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립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x^2=36.41, p<.001)

다음은 실외놀이 공간의 위치에 관한 결과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립유형 별로 실외놀이 공간의 위치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마당과 옥상에 실외놀이터(50%)가 가장 많았고 마당(46.7%)에만 있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법인시설인 경우에는 마당(90.7%)에 실외놀이터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민간시설에서도 법인 시설과 마찬가지로 마당(71.7%)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표 3> 실외놀이 공간 위치 (%)

구 분	실외놀이공간위치				전체	x^2
	마당	옥상	마당과 옥상	주변놀이터		
국공립	14(46.7)	1(3.3)	15(50.0)	0(.0)	30(100)	79.38***
법인시설	97(90.7)	4(3.7)	3(2.8)	3(2.8)	107(100)	
민간시설	33(71.7)	3(6.5)	9(19.6)	1(2.2)	46(100)	
전체	144(78.7)	8(4.4)	27(14.8)	4(2.2)	184(100)	

***p<.001

났다. 즉, 대부분의 어린이집에는 마당에 실외놀이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포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79.38, p<.001).

다음은 실외놀이터에 구비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종류를 마당과 옥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로서 중복응답의 결과이다.

<표 4> 실외놀이의 흥미영역별(중복응답) N=176(%)

흥미 영역별 놀이시설	빈도(%)	
	마 당	옥 상
고정놀이기구(운동놀이)	162(92.0)	9(22.0)
정적놀이 영역(그늘)	96(54.5)	10(24.4)
모래놀이 영역	123(69.9)	2(4.9)
물놀이 영역	80(45.5)	16(39.0)
동물사육장	27(15.3)	0
식물 재배장	103(58.5)	4(9.8)
목공놀이 영역	13(7.4)	3(7.3)
잔디밭이나 운동장	97(55.1)	12(29.3)
상상놀이 영역	19(10.8)	14(34.1)
산책로	36(20.5)	1(2.4)
휴식영역	73(41.5)	18(43.9)
흙산	8(4.5)	0
기타	5(2.8)	1(2.4)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외놀이기구가 마당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176개의 응답 중 고정 놀이기구가 9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래놀이 영역(69.9%), 식물 재배장(58.5%), 잔디밭이나 운동장(55.1%), 물놀이 영역(45.5%), 휴식영역(41.5%), 산책로(20.5%), 동물사육장(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상상놀이 영역, 목공놀이 영역, 흙산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내용으로 신체활동 영역(매트, 암벽 타기), 자동차놀이 영역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에 있는 놀이 기구 유무에 대한 전체 41개의 응답 중 휴식영역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물놀이 영역(39.0%), 상상놀이 영역(34.1%), 잔디밭이나 운동장(29.3%), 그늘을 포함한 정적놀이 영역(24.4%), 고정놀이 기구(22.0%)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 재배장, 목공놀이 영역, 모래놀이 영역, 산책로, 동물사육장, 흙산은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고정놀이 기구의 구비 실태를 중복응답한 결과이다 .

<표 5> 고정 놀이 기구 구비 실태(중복응답)
N=179(%)

고정놀이 기구 종류	빈도(%)
그네	1(.6)
시소	74(41.3)
철봉	40(22.3)
정글짐	30(16.8)
복합놀이기구	32(17.9)
회전놀이 기구	150(83.8)
징검다리	12(6.7)
흔들목마	26(14.5)
구름사다리	31(17.3)
흔들다리	28(15.6)
기타	41(22.9)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 놀이 기구 중 회전놀이 기구가 83.8%로 가장 높았으며 시소가 41.3%, 기타(미끄럼틀, 볼풀장)가 22.9%, 철봉이 22.3%, 복합놀이기구는 17.9%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구름사다리(17.3%), 정글짐(16.8%), 흔들다리(15.6%), 흔들목마(14.5%), 징검다리(6.7%), 그네(.6%) 순으로 구비 현황이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복합놀이 기구에 딸린 미끄럼틀 외의 단독 미끄럼틀과 볼풀장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이동놀이 기구의 구비 실태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 6> 이동놀이 기구 구비 실태(중복응답)

N=174(%)

이동놀이 기구 종류	빈도(%)
사다리	16(9.2)
타이어	34(19.5)
손수레	16(9.2)
링터널	29(16.7)
흔들배	19(10.9)
자전거	108(62.1)
공	136(78.2)
훌라후프	86(49.4)
덤블린	5(2.9)
평균대	18(10.3)
물·모래놀이 용품	118(67.8)
도서	5(2.9)

보육시설에서 실외놀이 시간에 이용하는 이동놀이 기구의 종류를 <표 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놀이 기구는 공(78.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물·모래놀이 용품(67.8%), 훌라후프(49.4%), 타이어(19.5%), 링터널(16.7%), 흔들배(10.9%), 평균대(10.3%)로 나타났다. 사다리, 손수레, 덤블린, 도서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실외놀이 운영실태

연구대상 보육시설에서 일과 운영에 실외놀이 시간이 편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담당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x^2 분석 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실외놀이 시간 편성 여부(%)

	실외놀이시간편성		전체	x^2
	예	아니오		
만0세	12(66.7)	6(33.3)	18(100.0)	10.13*
만1세	49(77.8)	14(22.2)	63(100.0)	
만2세	59(89.4)	7(10.6)	66(100.0)	
만3세 이상	55(91.7)	5(8.3)	60(100.0)	
합 계	175(84.5)	32(15.5)	207(100.0)	

*p<.05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 보육시설 중 84.5%가 일과 운영 안에 실외놀이 시간을 따로 편성하고 있었고 15.5%는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영아반(만0세, 만1세, 만2세)과 유아반(만3세 이상)의 실외놀이 시간 편성(x^2=10.13, p<.05)에 따른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실외놀이 편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연구대상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외놀이 횟수와 일과 중 실외놀이 실시 시간과 시간량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외놀이 실시 횟수는 매일 1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40.1%), 주 1 ~ 2회(31.4%), 주 3 ~ 4회(23.7%), 2주에 1회(3.4%), 월 1회(1.4%)순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 실시 횟수에서는 담당학급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x^2=29.09, p<.01).

<표 8> 담당학급 연령에 따른 실외놀이 실시 횟수 (%)

	실외놀이횟수					전체	x^2
	매일 1회이상	주 1~2회	주 3~4회	2주 1회	월 1회		
만0세	0(.0)	13(72.2)	5(27.8)	0(.0)	0(.0)	18(100.0)	29.09**
만1세	24(38.1)	16(25.4)	17(27.0)	5(7.9)	1(1.6)	63(100.0)	
만2세	30(45.5)	21(31.8)	12(18.2)	1(1.5)	2(3.0)	66(100.0)	
만3세 이상	29(48.3)	15(25.0)	15(25.0)	1(1.7)	0(.0)	60(100.0)	
총 계	83(40.1)	65(31.4)	49(23.7)	7(3.4)	3(1.4)	207(100.0)	

**p<.01

즉 연구대상 보육시설 중에서 만0세반은 매일 실외놀이를 실시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의 <표 9>는 실외놀이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이다 .

<표 9> 실외놀이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중복응답)
N=203(%)

실외놀이 시간대	빈도(%)
간식시간 후	33(16.3)
점심시간 전	58(28.6)
점심시간 후	70(34.5)
낮잠시간 후	9(4.4)
오후간식 전	4(2.0)
오후 간식 후	30(14.8)
귀가 시간 바로 전	13(6.4)
일과 진행 흐름에 맞게 융통적으로	65(32.0)
총 계	282(138.9)

<표 9>에 나타나 바와 같이, 연구대상 203개의 설문 중 실외놀이 운영시간대는 '점심시간 후'(34.5%)가 가장 많았고 '일과 진행 흐름에 맞게 융통적으로'(32.0%), '점심시간 전'(28.6%), '간식시간 후'(16.3%), '오후 간식 후'(14.8%), 귀가 시간 바로 전(6.4%), 낮잠 시간 후(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실외놀이 활동 1회당 할애 시간을 살펴본 결과이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21분 ~ 30분이 5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1분 ~ 40분은 27.5%, 10분 ~ 20분은 14.5%, 1시간 이상이 4.8%로 나타났다. 실외놀이 활동 1회당 할애시간은 담당학급 연령별(x^2=19.01, p< .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만3세 이상 반이 만2세 미만 반에 비해 좀 더 오랜 시간을 실외놀이에 할애 하고 있었다.

<표 11> 실외놀이 시간의 적절성 여부

	빈도(%)
예	157(76.2)
아니오	49(23.8)
합계	206(100.0)

실외놀이 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제 교사의 76.2%가 충분하다고 응답했고 23.8%의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3.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대상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외놀이의 적당한 횟수와 실외놀이 1회당 적절한 시간,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중요성), 실외놀이를 운영할 때 어려운 점 및 실외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실외놀이에 소요되는 시간(%)

	실외놀이시간계획				전체	x^2
	10~20분	21~30분	31~40분	1시간 이상		
만0세	4(22.2)	11(61.1)	3(16.7)	0(.0)	18(100.0)	19.01*
만1세	14(22.2)	33(52.4)	16(25.4)	0(.0)	63(100.0)	
만2세	7(10.6)	40(60.6)	15(22.7)	4(6.1)	66(100.0)	
만3세이상	5(8.3)	26(43.3)	23(38.3)	6(10.0)	60(100.0)	
합 계	30(14.5)	110(53.1)	57(27.5)	10(4.8)	207(100.0)	

*p<.05

<표 12> 실외놀이 적당한 횟수 (%)

		실외놀이 적당한 횟수				전체	x^2
		매일 1회이상	주1~2회	주3~4회	월 1회		
담당 학급 연령	만0세	9(50.0)	3(16.7)	6(33.3)	0(.0)	18(100.0)	4.22
	만1세	36(57.1)	11(17.5)	15(23.8)	1(1.6)	63(100.0)	
	만2세	36(54.5)	11(16.7)	19(28.8)	0(.0)	66(100.0)	
	만3세이상	29(48.3)	10(16.7)	21(35.0)	0(.0)	60(100.0)	
	전체	110(53.1)	35(16.9)	61(29.5)	1(.5)	207(100.0)	

<표 12>에 의하면 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실외놀이 횟수는 매일 1회 이상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3 ~ 4회(29.5%), 주 1 ~ 2회(16.9%), 월1회(.5%)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학급별(x^2=4.22) 실외놀이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의 학급에서 매일 실외놀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 1회당 적당한 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대체로 교사들이 21분 ~ 30분 정도(49.3%)로 대답하였으며, 31분 ~ 40분(30.9%), 10분 ~ 21분(13.5%), 1시간 이상(6.3%)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에 따른 실외놀이 1회당 적당한 시간을 살펴본 결과 담당학급의 연령(x^2=32.7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실외놀이 1회당 적정시간을 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교사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실외놀이 시간 편성(중복응답) N=207

시간	N(%)
간식시간 후	15(7.2)
점심시간 전	51(24.6)
점심시간 후	71(34.3)
낮잠시간 후	12(5.8)
오후간식 전	6(2.9)
오후 간식 후	38(18.4)
귀가 시간 바로 전	8(3.9)
일과 진행 흐름에 맞게 융통적으로	81(39.1)
전체	282(136.2)

<표14>와 같이 하루일과 중 교사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실외놀이 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 분석을 한 결과 일과 진행 흐름에 맞게 융통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점심시간 후(34.3%), 점심시간 전(24.6%), 오후 간식 후(18.4%), 간식시간 후

<표13> 실외놀이 1회당 적당한 시간 (%)

		실외놀이 1회당 적당한 시간				전체	x^2
		10~20분	21분~30분	31분~40분	1시간 이상		
담당 학급 연령	만0세	2(11.1)	11(61.1)	5(27.8)	0(.0)	18(100.0)	32.72***
	만1세	11(17.5)	36(57.1)	16(25.4)	0(.0)	63(100.0)	
	만2세	11(16.7)	32(48.5)	22(33.3)	1(1.5)	66(100.0)	
	만3세이상	4(6.7)	23(38.3)	21(35.0)	12(20.0)	60(100.0)	
	전체	28(13.5)	102(49.3)	64(30.9)	13(6.3)	207(100.0)	

***p<.001

(7.2%), 낮잠시간 후(5.8%), 귀가 시간 바로 전(3.9%), 오후 간식 전(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중복응답)

N=207

내 용	N(%)
신체발달	2(1.0)
정서적 안정감 증진	199(96.1)
사회성 발달	69(33.3)
자연학습의 기회 제공	150(72.5)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156(75.4)
창의성 증진	33(15.9)
기타	29(14.0)
전 체	638(308.2)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표 15>와 같다. 교사들은 실외놀이 활동이 주는 효과로 정서적인 안정감 증진(96.1%)과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75.4%), 자연학습의 기회 제공(72.5%)을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식하였고 '사회성 발달', '창의성 발달', '신체발달'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실외놀이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정도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한다.'(53.6%)는 교사도 많았지만 가능하면 계획하려고 하거나(44.9%) 실외놀이는 가급적 피하는(1.4%) 교사도 있었다. 담당학급 연령별로 실외놀이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실외놀이 활동 시 어려운 점과 실외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로서,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몇 가지 예시를 주고, 그것을 토대로 기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연구대상 중 이 문항과 다음 문항인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응답하지 않은 연구대상이 있었으므로, 앞의 선다형 문항에 대한 결과와는 사례수에서 차이가 난다.

<표 17> 실외놀이 활동 시 어려운 점 N=196

내 용	빈도(%)
특별활동으로 인한 실외놀이 시간이 부족하다	14(7.1)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 불안하다	61(31.1)
공간이 협소하여 타 학급과 시간차를 두고 사용해야하므로 불편하다	34(17.3)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39(19.9)
위험요소가 많다	59(30.1)
부모님들의 이해 부족	9(4.6)
건강상의 문제	10(5.1)
실내놀이시간도 부족한 실정-시간부족	3(1.5)
놀이기구의 부적합	18(9.2)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2(1.0)
영아의 뒷정리가 힘들다	2(1.0)
날씨 영향	4(2.0)
교사 대 아동비율	6(3.1)
안전점검이 힘들다	1(.5)
공간이 부족	20(10.2)

<표 16> 실외놀이 활동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정도 (%)

		실외놀이 시간 운영 노력			전체	x^2
		실외놀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한다.	가능하면 계획하려고 한다.	실외놀이는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담당 학급 연령	만0세	9(50.0)	9(50.0)	0(.0)	18(100.0)	4.09
	만1세	30(47.6)	31(49.2)	2(3.2)	63(100.0)	
	만2세	39(59.1)	26(39.4)	1(1.5)	66(100.0)	
	만3세이상	33(55.0)	27(45.0)	0(.0)	60(100.0)	
	전 체	11(153.6)	93(44.9)	3(1.4)	207(100.0)	

실외활동 시 어려운 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 불안하다(31.1%)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위험요소가 많다(30.1%),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19.9%), 공간이 협소하여 타 학급과 시간차를 두고 사용해야 하므로 불편하다(17.3%), 공간이 부족하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기구가 적합하지 않다, 특별활동으로 인해 실외놀이 시간편성이 힘들다, 건강상의 문제, 부모님들의 이해 부족,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날씨의 영향,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안전점검이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 외에 놀이터 바닥이 시멘트여서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전교육이 부족하다, 실외놀이터가 없는 경우 주변 놀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표 18>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N=200

내 용	빈도(%)
실외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사, 부모의 인식 전환	47(23.5)
실외놀이 운영에 대한 원장,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	36(18.0)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	82(41.0)
시설 확충 및 보완을 위한 재정적 지원	85(42.5)
안전점검에 대한 보완	34(17.0)
안전교육의 실시	3(1.5)
넓은 공간 확보	21(10.5)
특별활동을 줄여서 시간 확보	2(1.0)
영아들만의 실외놀이 공간 확보(영유아 공간 구분)	5(2.5)

위의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외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시설 확충 및 보완을 위한 재정적 지원(42.5%)과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41.0%)이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이 실외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전환(23.5%)과 안전점검에 대한 보완(17.0%), 실외놀이에 대한 원장,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18.0%), 넓은 공간확보(10.5%), 영아들만의 실외놀이 공간 확보(2.5%), 특별활동을 줄여서 시간 확보(1.0%)로 응답하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제주시, 서귀포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외놀이시설 현황 및 실외놀이 운영 실태와 영유아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제주지역 어린이집 실외놀이 환경 실태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87.4%가 독립적인 실외놀이 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국공립 시설은 46,7%, 법인 시설은 90.7%, 민간 시설은 71.7%가 마당에 실외놀이터가 있었으며, 마당과 옥상에 있는 경우는 국공립 시설이 50%, 법인 시설이 2.8%, 민간 시설이 19.6%였다. 이는 신동주 · 양연임(2003)의 유치원의 실외놀이 시설 실태와 교사 · 학부모의 인식 조사에서 참여한 유치원의 90.1%가 마당에 놀이터가 단독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김은미(2005)의 영유아 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조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 실태에서 전체 86.7%가 단독으로 실외놀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치와 어린이집을 포함

한 연구에서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데서 오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100%, 법인 시설은 96.3%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민간 시설은 67.6%로 국공립 · 법인 시설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시설의 실외놀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외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면 전체 81.6%가 어린이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실외놀이터에서 이루어지며 자체적으로 실외놀이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협소한 경우 주변 놀이터(13.5%), 인근 공원(4.8%)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의 흥미영역별 놀이기구의 배치 유무에서 마당에 있는 놀이기구로는 고정놀이기구(운동놀이)가 92.0%로 가장 많았으며 모래놀이 영역(69.9%), 식물재배장(58.5%), 정적놀이 영역(54.5%), 물놀이 영역(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옥상에는 휴식영역(43.9%), 물놀이(39.0%), 상상놀이 영역(34.1%)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실외놀이 공간이 대부분의 경우 복합놀이 시설물 등과 같은 고정놀이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김수경(2000), 신동주와 양연임(2003)의 연구결과와 연계되는 것으로 영유아들이 게임을 하거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개방된 공간, 실내놀이를 연장하거나 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영유아들이 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배려가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고영자(1998), 신동주 · 양연임(2003)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시설이 예전과 다름없이 최근에도 단순한 형태의 기능놀이를 촉진하는 고정놀이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들의 구성놀이 및 상상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목공놀이 시설, 놀이집, 모형차 및 물놀이 시설, 실내놀이를 하거나 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전거 및 여러 가지 탈 것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 여러 가지 자연물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시설에서 모래놀이 영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래놀이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비하고 있다기 보다는 고정놀이 시설물 주변에 충격 흡수용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영아와 걸음마기 영아들이 안전하고 방해를 받지 않으며 마음껏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고정놀이기구와 이동놀이 기구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고정놀이기구 중 회전놀이 기구(83.8%), 시소(41.3%), 철봉(22.3%) 등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이동놀이 기구로는 공(78.2%), 물·모래놀이 용품(67.8%), 훌라후프(49.4%) 등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실외놀이는 단순히 고정시설물을 이용하여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발달 영역과 연계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동놀이 기구가 제공되어 진다면 날씨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하루일과 중 매일매일 실외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정놀이 기구는 영아들을 위한 도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교사들이 영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또한 Frost 등이 지적한 것처럼 가장 훌륭한 놀이터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행동의 차이를 고려하고 놀이의 사회적, 인지적 형태를 포함하는 아이들의 자연스런 놀이 욕구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것(Frost, Shin, & Jacobs, 1998)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실외놀이 환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주지역 어린이집 실외놀이 운영 실태

실외놀이 운영실태는 교사의 담당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외놀이가 하루일과에 편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만3세 이상은 91.

7%, 만2세는 89.4%, 만1세는 77.8%, 만0세는 66.7%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외놀이가 하루일과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중 만0세 영아반이 33.3%나 된다는 것은 실외놀이가 영아와 걸음마기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많은 영아들이 실외놀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아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와 영유아의 통제 및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결과이며 실외놀이터가 만0세에 비해 만3세 이상이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 연령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외놀이 실시 횟수와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담당학급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침에서 권장하는 매일 1회 이상 하는 경우 만3세 이상이 5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다음이 만2세(45.5%), 만1세(39.3%) 순이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에서 21 ~ 30분을 소요한다는 교사가 전체적으로 53.9%의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이상은 44.1%, 만2세는 60.6%, 만 1세는 54.1%, 만0세는 61.1%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만 2세 이상에서는 1시간 이상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작은 수치나마 있었으나 만0세와 만1세에서는 응답한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면 연령이 어린 영아일수록 실외놀이 시간이 짧으며 이는 노인숙(2001)의 연구에서 유아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3. 제주지역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다음으로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실외놀이 횟수는 매일1회 이상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당학급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외놀이 1회당 적당한 시간은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21 ~ 30분이 전체 49.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하루일과 중 융통적으로 시간을 편성하는 것을 39.1%의 교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시간 편성과 현재 보육과정에서 실외놀이가 점심식사 후에 이루어진다고 답한 교사가 34.5%로 가장 높았던 점에서 수치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일 실외놀이를 실시하고 실외놀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대와 적당한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사가 생각하는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정서적 안정감 증진(96.1%)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의 능력의 발달(75.4%),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72.5%)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찾고 있었다. 창의성 증진, 사회성 발달, 신체발달에 응답한 교사들도 있어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실외놀이를 주로 신체발달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정서적 안정감 증진이 신체발달 만큼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황양선(2003)의 연구에서 유아의 신체를 발달(27.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결과와는 다르며 김수경(2000), 신동주(2004)의 연구에서 사회성 발달이 실외놀이의 가장 큰 교육적 효과라고 보고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박진영(2003)의 영아들에게 실외놀이가 제공되면서 실내공간에서의 억압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해 내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보다 안정적인 감정을 갖고 시설에 적응해 나가게 하는 매개 영향을 한다는 보고에서 본 연구가 대다수의 영아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다음, 교사들이 실외놀이 운영 시 힘든 점으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 불안하다(31.1%), 위험요소가 많다(30.1%),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30.1%), 공간이 협소하여 타 학급과 시간차를 두고 사용해야 하므로 불편하다(17.3%), 공간 부족(10.2%), 놀이기구의 부적합(9.2%)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들이 실외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치게 되었을 때 부담스럽고 영아들을 통제하기 힘들고, 실내놀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영아들을 위한 실외놀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영아용 놀이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실외놀이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영아들의 건강과 안전관리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외놀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보육 관련 인적환경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외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이숙재, 이봉선, 2000). 교사가 실외놀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외놀이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실외놀이 프로그램은 그 운영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실외놀이가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일 때 영아들은 더욱 더 많은 실외놀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활동에 접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부모 모두 실외놀이를 중요한 놀이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외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및 보완을 위한 재정적 지원(42.5%)과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41.0%), 실외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사,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23.5%)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선(2004)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및 보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안전점검에 대한 보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외놀이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사, 원장, 학부모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영유아들의 실외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제주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실외놀이가 영아와 걸음마기 영아들의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사가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실외놀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아반의 경우, 많은 교사들은 실외놀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외놀이에 투입되는 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들의 경우에는 초기의 발달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발달에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모르는 보육교사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도입되면서 각 시설마다 실외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매일 매일 1시간 이상, 영아들은 매일 30분 이상을 실외에서,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의 여건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아들을 위한 실외놀이 시설을 확충하고, 영아들에게 실외놀이를 제공할 필요성 있다. 이를 실행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실내 활동, 특별활동에 치중된 하루일과 속에서 실외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특히 영아와 걸음마기 영아들은 준비하고 뒷정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칠 염려가 많다는 이유로 실외놀이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장, 교사, 부모, 보육 행정가들은 영아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큰소리로 옹알이를 하고 새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실외공간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 및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키는 실외놀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 국가적 재정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안전에 대한 전문

적인 점검 및 보완 등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문희(2002). 21세기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고영자(1998). 어린이집 실외놀이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 구립/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자옥(1992). 유아교육시설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동숙(1998).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실태 조사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경(2000).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실태조사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미(2005). 영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아동교육 14(2) 271~286.

김인숙 (2006). 유치원의 실외놀이 시설·설비 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인숙(2001). 산본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용실태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현주(1994). 실외놀이터 유형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진순(2003).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실외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수경(1996).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환경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진영(2003). 산책을 통한 유아의 경험세계,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동주 · 양연임(2003). 유치원의 실외놀이시설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실외놀이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 논집 7(1) 93~112.

신동주(1996). 유치원 실외놀이 환경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 53~70.

신동주(2004). 유치원의 실외놀이 활동 실태 및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연구 24(6) 299~324.

신동주(2005).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활동·환경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연구, 유아교육학논집 9(2) 151~167.

신동주 · 김명순(1999). 아동안전을 위한 국내·외 아동놀이 시설물 및 놀이용품의 안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1), 177~198

유정선(2004).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실외놀이 실태와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경혜(1994). 유치원의 실외놀이장 시설·설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숙재 · 이봉선(2000).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제 행동과의 관계, 성신여대 교육문제 연구소. 교육연구, 34집, 129~151.

이희경(2006). 보육시설의 실외놀이실태 조사연구. 영유아교육연구, 제9권, 171~191.

임재택 · 하정연 · 조채영 (2002). 선생님! 바깥놀이해요, 서울; 양서원.

제주도청(2006). 2006 제주 여성 통계, 제주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조경희 · 신동주(1999). 실내·외 놀이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 어린이 교육, 1, 128~145.

황양선(2003). 유치원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 및 운영실태,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ergen, D. (1987). *Paly as a medium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Heinemann Educational Books Inc.

Frost, J. L.(1992). *Play and playscapes.* Albany, NY : Delmar.

Frost, J. L., Shin, D., Jacobs, P. J. (1998). Physical environments and children's play. In O. N. Saracho & B. Spodek(Eds.), *Multiple perspectives on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255~294).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Shin, D.(1998). The effects of changes in outdoor play environment on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play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 77~93.

Wellhousen, K. (2002). *Outdoor play, everyday.* Albany, NY: Delmar.